

# 미쓰비시 자산 현금화 속도...강제노역 배상 이뤄질까

### 심문 공시송달 효력 발생...법원 매각명령 조건 갖춰 8억원 상당 매각 신청...미쓰비시, 의견서 제출 예정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로 팔아 현금화한 뒤 법원의 배상 명령을 이행토록 하는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배상이 언제 이뤄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양금덕(91) 할머니 등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상표와 특허권에 대한 특별협약금' 신청 사건과 관련, 매각명령 심문서(9월 7일), 압류명령문(10월 28일)을 공시송달했다.

매각명령 공시송달을 했다 뒤늦게 압류명령문도 공시송달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법원이 매각명령을 내리면 감정평가→경매→매각대금지급→배당 등 압류된 미쓰비시 측 국내 자산에 매각절차가 진행된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와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됐다고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1인당 1억~1억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하는 등 2건의 징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측이 배상 판결을 미루면서 피해자들은 대안지법을 통해 미쓰비시가 소유한 국내 상표권 2건, 특허권 6건 등 약 8억 4000만 원 가치의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해 배상 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한 상태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강제집행을 멈춰 세울 방법은 미쓰비시가 법원 명령에 따라 배상하는 길 이외에 없다"며 "피해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남은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다문화 엄마들과 '하트하트'

광주시 동구 학동 주민들이 10일 학동마을사랑채에서 열린 공예방 프로그램에서 관내 다문화가정 엄마들과 함께 '사랑의 하트'를 만들고 있다. <광주시 동구 제공>

## 조선대-전주대-제주대, 5·18 역사교육 공유

### 로컬 러닝 프로젝트 성료

조선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는 최근 '조선대-전주대-제주대' 3개 대학이 함께하는 '제2회 로컬 러닝 프로젝트-대학생 역사다움'을 개최해 5·18민주화운동이 지닌 역사적 의미를 알리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10일 조선대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제2회 로컬 러닝 프로젝트(Local Learning Project)-대학생 역사다움'으로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열렸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호남·제주권 지역문화에 대한 대학생 간의 정보공유 및 역사교육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제주대 주관의 제주4·3 역사 공유에 이어 올해 5·18민주화운동 역사 공유를 주제로 진행됐다.

기존에는 주관 대학의 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각 대학의 개최 현장을 실시간 온라인 방송으로 진행했다. 조선대는 학생성공라운지에 마련한 1인용 비대면 프로젝트 활동 환경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동강대, 광주·전남 전문대 원격교육 '허브'

### 전국 권역 대학 원격교육 지원센터에 선정

동강대학교가 전국 권역 대학 원격교육 지원센터에 선정돼 광주·전남지역 전문대학들의 원격교육 허브 역할을 담당한다.

동강대는 최근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발표한 '권역 대학 원격교육 지원센터'에 전국 10곳 권역 중 광주·전남지역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4년제와 전문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코로나19'로 비중이 높아진 원격수업의 질 개선을 위해 2025년까지 진행된다.

동강대는 전남대와 손을 잡고 이번 공모에 참여

했고 광주·전남지역 18개 전문대학의 원격교육을 관리해 권역별 비대면 수업 격차 해소에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앞으로 동강대는 공동 활용 학습관리시스템(LMS), 강의 영상 녹화 및 실시간 화상 수업이 가능한 공동 영상 제작실 등을 교내에 구축한다. 또 대면수업이 어려운 비상상황에는 권역 내 안정적인 원격수업 운영을 지원하며 대학 교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원격교육 상담을 지원하는 교원들의 수업부담 경감에도 도움을 줄 예정이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 북구,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마을미래학교' 운영

### 14일까지 시화문화마을

광주시 북구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활용교육을 실시한다.

10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오는 14일까지 시화문화마을 문화관에서 주민·마을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2020 마을미래학교' 강좌를 운영한다.

이번 '마을미래학교'는 마을공동체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확산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마을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

고자 마련했다.

10일 개강식과 함께 송기희 호남대 교수가 '구해줘, 마을 브랜드!'라는 주제로 마을자원을 활용한 마을 문화브랜드 만들기에 대해 강연했다.

오는 14일까지 '마을 인문학', '사진찍고 편집하기', '유튜브 송출하기', '마을과 도시재생', '마을 살이 워크숍' 등 맞춤형 교육이 진행된다.

북구는 오는 12월 중 마을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2020 북구 마을미래학교 평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입시 학원 특별 지도점검

### 광주서부교육지원청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본격적인 입시철을 맞아 입시 관련 학원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대입을 앞두고 입시컨설팅, 고액 논술 특강 등의 불법·편법 운영을 예방하는 등 학원비 안정화를 위해서 실시한다.

특별 지도점검은 입시·보습(진학상담지도 포

함) 및 예능 분야 학원 중 입시종합(단과)·입시미술·입시음악·대입논술·입시컨설팅 등을 교습하는 학원을 대상으로 한다.

서부교육지원청은 교습비 등 초과 징수(거짓 표사·계시), 거짓·과대광고, 성범죄·이동학대범죄경력 조회 미실시, 소방안전관리 실패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입시 관련 학원 점검 때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중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0729-중-44360호

## 성장에 중요한 시기 성장판 닫히기 전에!



**소중한 우리아이  
성조숙증이 걱정된다면  
한약 치료로!**

**“성장을 방해하는 성조숙증  
제때 검사와 치료가 중요해요”**

성조숙증은 내 아이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질환입니다. 성장 뿐 아니라 신체적 건강, 정서, 성격 형성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예방 및 조기 진단과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박기원 서정한의원 원장

저희 서정한의원은 25년간 진료하며 쌓아온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의 성장을 걱정하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정직한 진료를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비대면진료 가능**

정부 방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오니 전화 혹은 온라인 문의 바랍니다.



성조숙증클리닉 성장클리닉  
**서정한의원**  
seojeong.com

소아비만, 성조숙증, 성장장애를 동시에!  
체질을 고려한 성장장애치료

예약문의 | 24시간 전화 예약 가능

# 02·515·8585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11(삼성동 37-15 서정빌딩)  
본당선 선정릉역 2번출구에서 약 60m / 라마다 서울호텔 맞은편